

강진 가우도짚트랙 관광객 체험코스 자리매김

청자타워와 접목 획기적 관광 콘텐츠 수익구조 창출
민간 위탁 협약... 입장료 상품권 환불 지역경제 도움

전남도 선정 가고싶은 섬 강진 가우도에 들어선 청자타워와 짚트랙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 체험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대부분의 전망대가 운영 비조자 마련하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강진 청자타워는 1km에 달하는 해상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짚트랙을 타워 안에 설치해 완벽한 수익구조를 갖췄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강진군은 전망대의 단순한 경관조망 기능을 넘어 전국 최초로 레저시설인 짚트랙과 접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강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주)가우도 짚트랙과 짚트랙 운영과 관련 위탁협약을 맺고 1년간 사용료 명목으로 1억원을 선납 받고 향후 수익금에 대해서도 군과 위탁업체간 5대5로 균등배분하기로 했다. 강진군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와 짚트랙 이용객의 강진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운영비 또한 민간업체가 부담함으로써 강진군은 재정부담이 없이 새로운 관광자원과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게 됐다. 강진군은 이와 함께 짚트랙 이용료 2만 5000원 가운데 5000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관광객들이 강진읍 내를 비롯한 강진지역 내 상가를 찾거나 강진산 농수특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청자타워내 짚트랙 설치 아이디어는 전망대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제안에 따라 '연중 이용률 제고'와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나온 획기적인 콘셉트로 꼽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내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앞두고 강진관광의 랜드마크인 가우도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강진읍내 식당들은 고객으로 넘쳐나고 고려정자박물관, 마량놀토수산물

장 등 주변 명소와 관광지 역시 개칭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55만명이 다녀간 가우도를 치유와 감성이 넘치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섬 휴양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타워는 가우도내 정상에 25m 높이로 조성됐다. 강진타워 내 '하늘길'로 불리는 짚트랙은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된 고정형 구조물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 형성된 경사면에 트롤리를 이용해 별도의 전기적 장치 없이 무동력으로 하늘을 활강하는 친환경 레저시설이다.

라인은 3개로 세 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며,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공중에서 서로 마주보며 내려올 수도 있다. 횡단시간은 약 1분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억불산 자생식물원 관람객 북적

유리온실·수생비오토프·식물원 등 현장학습 체험장 인기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내 들어선 억불산 자생식물원이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지난 2015년 개장한 억불산 자생식물원은 유리온실, 수생비오토프, 야외 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을 찾는 각 지역의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단체관람객이 늘어나며 자생식물원도 붐비고 있다.

유리온실에는 다양한 허브 종류를 식재해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수생비오토프가 인기가 많다. 부래옥잠과 같은 수생식물과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분양한 비단잉어, 금붕어 등 150여 마리가 살고 있는 수생비오토프에서는 대형 유리관을 통해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술비·횡수 늘려

강진군보건소가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및 지원횡수를 확대하면서 보건소를 찾는 대상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강진군보건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확대돼 1인당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에도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고 있다. 지원횡수 역시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었다. 장동욱 강진군보건소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들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원 강진군수 서울서 강진쌀 판촉 이벤트

500g 2000포대 나눠주고
강진산 장미도 선물

강진원 강진군수와 강진군 공무원들이 지역 주력산업인 농업 살리기와 쌀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강진쌀·장미꽃 홍보 이벤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쌀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쌀 소비 촉진 및 강진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장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강진에서 직접 생산한 500g짜리 유기농쌀 2000포대와 장미 2017송이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나눠주는 행사를 펼쳤다. 강진군은 국내 최대 유기농 비배매단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전남 고품질쌀, 전국 고품질쌀로 수차례 선정되는 등 높은 품질과 밥맛이 일품인 곳이다. 여기에 화웨이 1번지로 풍부한 일조량에 꽃색이 좋고 향기가 짙어 전국 최고의 고품질 장미도 생산하고 있다. 강진 장미는 전국 생산량의 3%, 전남의 44%를 차지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강진산 쌀과 장미꽃을 선물 서울 시민들은 화사한 장미의 아름다움과 시골 쌀을 나누주는 넉넉한 인심에 환한 미소를 담았다. 서울시 송파구 이정화(47)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이라 다소 무거운 발걸음이었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시장 앞에서 강진산 유기농 쌀과 장미를 나눠주고 있다. <강진군 제공>

데 장미 한 송이를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다"며 "쌀값이 떨어져 농민이 걱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군수까지 직접 나와서 홍보하는 모습에 절박함과 감동을 받았다. 작은 보탬이겠지만, 시골 농민들을 위해 강진쌀을 꼭 사먹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근무한다는 한 공무원은 "기념품을 담은 종이가방 한 쪽에 유기농 쌀과 장미를 구매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 판매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른 면에는 강진의 주요 명소를 자세하게 홍보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면서 "지역민을 생각하는 시골 지자체의 노력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 졌다"고 격려

의 말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쌀 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주름이 깊게 패었다"면서 강진군은 날씨가 따뜻하고 농도가 좋아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만큼 서울 시민들이 맛보고 소문도 많이 내렸으면 한다"고 홍보했다. 강 군수는 또 "김영란법 시행 후 화훼산업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걱정이 많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강진 화훼를 전국에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과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농상생협력을 체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군 지방도 827호 갓길·보행로 확충

호계·파산리 640m구간

강진군은 "지방도 827호선 구간 중 보행과 농기계 통행이 잦은 군동면 호계리와 파산리 2개 640m구간에 보행로와 갓길을 확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구간은 1일 평균 차량 2000대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로, 호계리·문화마을과 연계해 주민통행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그동안 보행로 개설이 꾸준

히 제기돼 왔다. 강진군은 또 봄철 벼꽃으로 유명한 금곡마을 인근에도 갓길을 확장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단순히 통행여건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더 많은 구간에 보행로와 갓길 정비도 도로관리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공사기간 중 안전운전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장평~장동면 지방도

주민들 과속방지턱 철거 요구

장흥군 장평면 주민들이 신설되는 직선 도로 내 과속방지턱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총 120억원을 들여 장흥군 장평면에서 장동면을 오가는 2차선 지방도 839호선 3.5km 구간을 선형변경사업을 했다. 그러나 이 구간을 지나는 차들과 경운기 등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선형변경된 도로는 비교적 직선도로로, 인근에 마을도 없어 차량 운행 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 구간인데도 과속방지턱이 3개나 설치돼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해당 도로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이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리산 관광특구 내,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000만원만 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20억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